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조형래 곡성군수

"친환경농업 육성 주력"

조형래 곡성군수는 금년을 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설정했다.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고소득 농림산업 육성 ▲생활복지 선진화로 복지수준 향상 ▲도시수준의 교육기회 제공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관광 진흥 ▲지역경제 회복과 활기찬 지역개발 ▲행정조직의 창의적 혁신 등 6개 시책을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친환경단지를 전체 경지면적의 37.5%인 3천365ha로 확대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율도 30%인 2천700ha까지 늘린다.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군수의 지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을 살려 명품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켜 농산물을 제 값에 안정적으로 판매하는 유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곡성은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6%에 이르는 초 고령화 지역이다. 복지 향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현안임을 조군수는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매와 중풍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 노인들의 고질병 치료를 위해 유치했던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를 올해 본격화한다. 농촌 노인들의 생활 중심지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개·보수, 겨울철 노인들의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조군수는 도시수준의 교육기회 제공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농촌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이기 때문이다. 곡성지역에는 2004년까지 적정규모 학교 육성시범사업이 마무리돼 2005년부터 현대식 교육시설과 첨단 기자재를 갖춘 새 학교가 들어섰다. 이제부터는 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을 감당하는 자녀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설, 전인교육과 실력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조군수의 확고한 신념이다. ,

도시수준 교육기회 제공

생태환경 보전과 관광개발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눈길을 끈다. 어느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개발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타 지역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특히 곡성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섬진강기차마을 주변의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조성, 곡성온천 개발, 섬진강천문대 건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활기찬 지역개발도 올 곡성 군정의 중점 추진 분야다. 이를위해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효율성을 확보하고 4개 분야 111개 시책과제를 선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기차마을 체험장으로

행정조직의 창의적 혁신을 위하여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 성과 중심의 일류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 조군수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10년 계획의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조군수는 "농촌·농업·농민 등 3농 정책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노인 및 교육문제 등에 군정의 무게를 싣겠다"고 밝혔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외국계 국화품종 로열티 안내면 경매시장 출하 금지

전남지역 화훼농가 '비상'

외국 육종회사 "위반시 법적 조치"

"국가차원 국산종 개발·보급 절실"

올해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국화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이 의무화되면서 전남지역 화훼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외국계 육종회사의 국내 대리업체인 대양화훼종묘, 다고원예, 세미라이트 등 3개사는 지난 1일부터 로열티 계약없이 재배한 국화 150여 종을 공판장이나 시장에 출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화의 경우 지난 2001년 품종보호등록 작물로 지정된 이후 수출품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원예농협 광주공판장을 비롯한 전국 모든 공판장에서 외국계 육종회사와 로열티 지불계약을 맺지 않은 국화 출하가 전면 금지됐다.

지난 3일 광주 원예농협 공판장에는 개인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소국(小菊) 경매물량이 평소보다 30% 감소한 2천800단(10송이 기준)에 그쳤으며, 외국계 육종업체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경매과정을 지켜봤다.

6천여 평의 시설하우스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박명준(48·영암군 미암면)씨는 "저온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 상품가치가 높은 일본 신품종 '수이신(輝心)' 모종을 사올 때 1본당 44원을 지불한데다 올해부터 서울 화훼공판장에 1송이당 15원의 로열티를 부담하면서 출하했다"며 "국가 차원에서의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화순·무안·강진지역 158농가가 80.3ha에서 6천400여만 송이의 국화를 생산, 75억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포도나무 가지치기… 농부 손놀림 분주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농부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군 산동면 포도재배 농민들은 올 여름 풍성한 수확을 위해 겨울철부터 정성을 쏟고 있다. /연합뉴스

신안군 이달중순 부터 야간 뱃길시대 열린다

신안군에 야간 뱃길 시대가 열린다.

신안군은 최근 시간과 관계없이 여객선을 운항토록 하고 여객선사의 적자 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간운항여객선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여객선 운항시간은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로 한정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조례 제정과 함께 본

'야간운항지원조례' 제정 농산물 신속 유통 기대

격적인 야간 뱃길 시대를 열기 위해 선사에 지급하는 적자 보조금 3억 원과 야간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선착장 보강및 연결 도로망 확충에 5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따라 이달 중순부터 야간 뱃길이 열리면 농수산물 적기출하로 인한 유통기간 단축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 신안군 내 56개 섬에 19개 노선이 개설돼 여객선 28척이 운항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인권유린 신고 포상금제'

김양식장·염전 근로자 보호

신안군이 오지 낙도 김 양식장과 천일 염전 등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평등 삶 누리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군은 우선 공직자 1인 1촌 갖기 운동으로 333개 행정마을과 결연한 공무원을 활용, 읍·면과 부속된 섬에서 천일 염전, 김 가공공장, 대규모 농가, 기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수시 점검키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달 중으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합동 실태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평등 삶 누리 포상금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인권 유린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안군 내 각 사업장에는 570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보성, 출산장려책 성과

보성군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보성군에서 지난해 출산한 신생아는 423명으로 2005년(369명)에 비해 14.6%가 증가했다.

보성군은 지난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첫째아이는 1년간 매월 20만원, 둘째아이는 매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매월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출산양육비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강진 신전면 사내 간척지 지역농업인에 우선 매각

강진군 신전면 사내 간척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된다.

강진군은 신전면 사내 간척지 공개매각이 2차례 연속 유찰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일반 경쟁입찰 방식인 공매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우선 분양권을 요구하며 일반인들의 입찰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강력 반발, 무산됐다.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받은 농어업인과 농업인 후계자, 전업어업인 등이며 견적서를 받은 뒤 높은 가격을 쓴 농가에 매각하기로 했다. 간척지 감정가는 ㎡당 2천500원~4천400원대이지만 경쟁자가 있을 경우 가격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대금은 일시 납부나 3년거치 10년(연리 3%) 분할상환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간척지 주변 논의 실거래 가격이 ㎡당 1만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농지를 구입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전면 사내 간척지는 지난 92년 착공, 2003년 준공됐으며 둑 길이 3.26km에 농경지 117만평, 담수호 93여만평으로 713억원이 투입됐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